

유해 폐기물 취급 근로자의 선제적 건강관리방안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송재철



인구 및 인구밀도의 증가와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폐기물의 양산을 동반한다. 일반적으로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이 주 대상이 되는 반면, 훨씬 고농도의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함을 물론, 체계적인 관리방안도 부족한 실태이다.

폐기물처리하는 수거/운반, 소각, 매립, 수처리 등 다양하며, 의료폐기물, 특정화학물질 등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서도 처리방법이 다르고, 특히 이들은 불특정 고농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유해 폐기물 취급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폐기물처리과정과 방법에 따른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건강문제 발생의 통계를 확보하여 건강 보호를 위한 접근의 우선순위를 매길 필요가 있다.

알려져 있는 일부 대표적 폐기물처리방법/과정을 분류하여 근로자의 건강유해인자를 정리하면,

- 1) 매립장 근로자 : 매립가스 발생으로 인한 대기질(특히, 악취) 악화, 매립 침출수 누출로 인한 악취 및 토양, 지하수 오염, 매립장 운영에 따른 사회적 단절, 박테리아, 곰팡이, 방선균류,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 부하 증가, 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 등
- 2) 소각장 근로자 : 다이옥신을 포함한 다양한 대기오염물질, 생활오수 및 시설운영에 따른 폐수, 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 등

- 3) 폐수처리장 근로자 : 산업폐수, 하수종말처리, 분뇨처리과정을 포함하며, 각종 유해화학물질, 악취 등
- 4) 의료폐기물처리 근로자 : 생물학적 요인, 화학적 요인, 방사선, 찔림, 폐임 등
- 5) 폐기물 수거/운반 : 소음, 유해화학물질 등 상기 유해인자와 더불어 디젤배기가스 등이 있다.

앞으로 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 1) 체계적인 직무분류, 2)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건강통계 확보, 3) 안전보건시설 설치의 의무화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이고, 강제력 있는 입법, 4) 사설 폐기물 수거/운반에 투입되는 인력이 대부분이 단기고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 직무이력관리제도 도입, 5) 단순근로자 채용 등으로 인하여 부실화되기 쉬운 장비 사용 방법 교육, 적절한 보호구의 제공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

